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제주시대 매몰... 국책사업 손놓았나”

제주도정 지역발전 사업 발굴 미흡 지적  
한권 의원 “중앙정부 정책기조 대비 부족”

제주도정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지방분권정책 추진 기조에 따른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발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등 소관 예산결산 심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지방분권정책 추진 기조에 따라 타 시도의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해 지역발전 계

기로 삼고 있는데 반해 제주를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제주만의 제주시대’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권 의원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지방행정 여론·동향’ 내용을 인용해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경우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신공항 추진, GTX 등 고속화 철도 착공 등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기조 및 대통령 공약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권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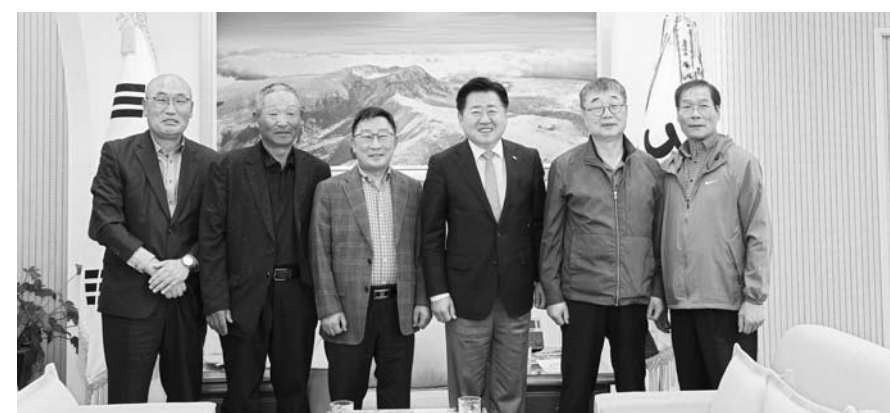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제주의 경우 ‘제2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고시 및 제주 관광청 신설에 대한 정부 논의 재개 희망’이 전부로, 이러한 상황이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특히 한 의원은 “민선 8기에서 수소경제, 도심항공교통(UAM),

유수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것이고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을 말하고 있지만, 이들 산업은 국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국가 직접지원 사업비가 있으나 대부분 국민의 혈세인 도비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 의원은 “민선 8기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만 국책사업 추진 동향에 연계해 도비(자체재원)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도 강구해야 한다”면서 “제주 또한 굵직한 국책사업에 선점해 도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정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태윤기자



16일 오영훈 제주도시사가 도내 5·18민주유공자 5명과 환담을 가졌다.

제주도 제공

## 도내 5·18민주유공자 처우개선 약속

오영훈 지사, 유공자 5명과 환담 가져

제주도가 도내 5·18민주 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오영훈 제주도시사는 16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5명과 환담을 가졌다. 환담에는 오영훈, 진희종, 송승석, 이연식, 장규범 씨가 참석했다. 유공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지역사회에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지역에 5·18민주화운동 특별지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진희종 씨는 “5·18 관련 행사가 이뤄지는 경우 보훈청에서 5·18민주유공자들에게 통지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면서 “보훈사업의 일환으로 유공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당부했다.

오영훈 씨는 “제주지역 5·18민주 유공자들이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호남지부에 소속돼 있는데, 제주에 지회가 설립되면 제도적으로 2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도내 5·18민주유공자는 15명 뿐”이라며 “10명의 회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특별지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내년에 5·18민주유공자 초청행사가 개최되면 민주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공식행사로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5·18민주유공자들의 희생과 공로에 합당하게 영예로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서 끝까지 책무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 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양곡법 이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 및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

대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속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도, 1억여원 사업비 지원 제주형 일자리 모델 발굴

제주특별자치도가 노사발전재단이 시행하는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사업’에 선정돼 제주형 일자리 모델 발굴에 나선다.

올해 전국 10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제주자치도는 ‘주력산업 상생·약육 미래 제주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을 주제로 한 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는 별도 도비 매칭 없이 총 1억100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올해 말까지 미래 제주형 일자리 모델 발굴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4월 수행기관인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원장 문만석)과 주관기관인 노사발전재단과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수행기관인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은 제주 주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미래 제주형 일자리 위원회 운영 및 일자리 모델 도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는다.

고대윤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제주도의회 제공

## 추경 상임위 심사서 430억 삭감

제주도-도의회 추경예산안 놓고 갈등 심화  
“추경 편성기조 부합하지 않는 사업 등 손질”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156억80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09억4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

원회 71억21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억50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34억2000만원 등 총 430억 원을 삭감했다.

제주도가 제1회 추경안으로 증액을 계획한 총 4128억원의 10%가 넘는 감액 규모로, 주요 삭감 내용은 송악산 유원지 사유지 매입비 151억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53억3100만원 등이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된 주요 사업과

관련해 서민경제 안정화 측면에서 시급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최근 추경 예산안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협의·소통 부재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1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와 소통이 부재했다”면서 “각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추경 편성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공약사업의 과도한 편중과 시급성 논란 등 일관성 없는 감액 편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채 이미 운영까지 발주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철회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제주도정의 약속은 말 뿐”이라며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제주도정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2023년도 좋은 일자리 환경구축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

좋은 일자리 환경구축 컨설팅사업은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대상으로 비용 절감과 인력난 해소 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비용** 전액 무료지원
- 신청기간** 2023년 5월 15일 ~ 2023년 6월 23일
-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신청방법** 제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jef.or.kr)에 회원가입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컨설팅신청 분야**

인사·노무분야 (노무사)	세무·회계분야 (세무사)	법률분야 (변호사)
노동관계 법령상 위법성 진단 및 개선 근로시간 분석에 따른 근무형태 조인	세법 및 관련기준, 지침 등에 대한 위법 해소 상담 법인세, 부가치세, 원천세 등 조세 관련 세무 이슈 상담	기업운영과 관련한 각종 법률자문, 법령해석 등 제공 신청기업의 법률자문 요청에 따른 상담 등 법률서비스 자문

**문의** Tel 064.751-2205-7 / Fax 064.751-2208 / 이메일 jefnomu@jef.or.kr

### 제주경영자총협회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 2023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제주향교 강좌 수강 안내

2023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제주향교 - 탐라 선비의 꿈을 잇다) 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강하오니 많은 도민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 신청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 합니다.

**다 음**

- 개강 일시 : 2023년 5월 20일(토)
- 강좌 기간 : 2023년 5월 ~ 10월
- 수강 신청 : 전화 신청  
☎ 문화재활용사업단 064-723-2347 / 총괄담당 010-2696-0935
- 교육 장소 : 제주향교 명륜당·충효관
- 수업료 : 없음

날짜	시간	강좌 프로그램	강사명	비고
5/23 (화)~	10:00 ~12:00	시조창 배우기	전 제주도시우회 회장 강문필	선착순 30명
6/3 (토)~	13:00 ~15:00	서예와 서예이론	철학박사 손효만	선착순 20명
5/23 (화)~	19:00 ~21:00	민요 배우기	제주민요명창 현성이	선착순 30명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주향교 전교 문군 하

### 제32주년 수근동향우회 정기총회 및 어울림 단합대회

정든 고향을 잃어 망향의 설움을 달랜지도 어느덧 40여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향우회원님들의 덕내 평안하십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수근동향우회 정기총회 및 어울림 단합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한자리에 모여 회원들간 그동안 못다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23년 5월 21일(일) 오전 10시
- 장 소 : 용담레포츠공원
- 연락처 : 회장 홍관수(010-3784-4272) / 총무 양완식(010-2689-8822)

### 수 근 동 향 우 회

회장 홍관수

### 곽금초등학교총동창회 제18회 한마음체육대회

신록의 푸르름이 질어가는 계절을 맞아 곽금초등학교 총동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짐하는 <제 18 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3년 5월 21일(일) 08:30 개회식 09:30
- 장 소 : 곽금초등학교 운동장
- 참석대상 : 내·외빈, 곽금초등학교 총동문 및 가족
- 연락처 : -사무처장 고성관 010-2693-7799 / -총무부장 김홍대 010-3696-0166

### 곽금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진명림